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0년 12월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6 No.2, 213-221, December, 2010

일 병원 프리셉터의 학생 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 및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간호학생과의 지각비교

박 지 원[1)] · 김 기 숙[2)] · 방 경 숙[3)]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간호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상호 연결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유재희, 조현숙, 이상하, 2002). 이러한 의미에서 간호학 교과과정에서의 임상실습교육은 이론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며,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의 개발은 간호교육자들의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간호학생을 위한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간호사 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학생프리셉터쉽 제도가 등장하였는데, 학생프리셉터쉽을 시행하는 병원은 임상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에게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임상실습의 목표에 부합된 체계적 실습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프리셉터의 실습교육이 이론과 임상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Hickey, 2010).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기존의 방법으로 실습한 학생보다 프리셉터쉽에 의해 실습한 학생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과 실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 1995; 이점덕, 이정숙, 2006, Zilenbo & Monterosso, 2008).

그러나 학생프리셉터쉽은 병원 실정에 맞는 임상실습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와 같이 교육기관의 교수(Faculty) 부족으로 프리셉터쉽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무와 간호교육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Blum, 2009), 프리셉터쉽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많은 프리셉터들이 학생프리셉터쉽 과정동안 역할습득과정의 어려움과 업무에 대한 회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허혜경 등, 2004), 간호학생 또한 이론적 근거와 최신 지식의 부족, 교육적 태도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이원희 등, 1995). 일부 연구에서는 학생프리셉터쉽이 기존의 임상실습교육과 간호행위 수행능력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이원희 등, 1998) 준비되지 않은 학생프리셉터쉽 도입은 그 효용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학생프리셉터쉽 개발을 위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프리셉터 프로그램 모델개발부터 적용, 평가와 프리셉터와 학생의 인식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Blum, 2009; Heffernan, Heffernan, Brosnan, & Brown, 2009; Zerbe & Lachat, 1991) 국내의 경우 프리셉터 활용모델 적용(이원희 등, 1995; 이원희 등, 1998), 프리셉터의 역할수행경험 내용분석(허혜경 등, 2004),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등에 대한 연구(이점덕, 이정숙, 2006)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

주요어 : 프리셉터쉽, 간호학생, 임상수행능력
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E-mail: 99sophi@hanmail.net)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10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5일

실제 간호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 태도 등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개개인의 교육-학습 과정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나 졸업 후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병원에서 기대하는 만큼을 따라가기 어려워 학교교육과 임상 현실에서의 시각 차이가 거론되고 있으며, 임상실무에 빠른 적응을 위한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cheetz(1989)는 학생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학생 프리셉터쉽 적용이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이는 간호학생의 직접간호 수행기회, 체계적 실습내용과 프리셉터의 적극적 지도 등 긍정적 실습경험에 의한 학생의 임상실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보고한 여러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바이다(Beeman, 2001; Mallete, Loury, Engelke, & Andrews, 2005).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학생 본인의 평가와 프리셉터와의 지각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최미숙, 2005). 이에 상술된 바와 같이 효과적인 학생프리셉터쉽 개발과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요구파악과 함께 학생과 프리셉터가 인지하는 임상 수행능력 준비도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한 현실적인 프리셉터쉽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프리셉터와 간호학생간의 지각을 비교해봄으로써 프리셉터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추후 학생프리셉터쉽을 임상실습 교육의 한 방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 프리셉터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프리셉터의 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프리셉터의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프리셉터와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학생 임상수행능력 준비도를 비교한다.

용어 정의

●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

학생 프리셉터쉽은 경력간호사인 프리셉터가 임상실습학생의 새로운 역할 습득과 성공적인 사회화를 이루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동안 임상실습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모형이 되어 자신의 프리셉티를 1:1로 만나면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이점덕, 이정숙, 2006). 본 연구에서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이란 경기도 일 대학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생프리셉터쉽 교육에 대한 병원 프리셉터 간호사의 인식을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자가 기입형 설문지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 임상수행능력 준비도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준비도는 임상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간호활동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순이(2004)의 9개 영역 40개 항목에 대해 프리셉터와 간호학생이 각각 학생의 준비도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이 잘 준비되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재 간호사 프리셉터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 프리셉터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대학병원에서 프리셉터 과정을 이수하고 신규간호사와 간호학생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학교와 프리셉터간의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 67명과 같은 대학 소속의 1년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년제 간호학생 63명 이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로, 간호학생은 졸업식을 앞둔 4학년 24명과 4학년 임상실습 시작 예정인 3학년 39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동의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바로 수거하였으며, 총 130부 중 불충분한 응답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프리셉터 설문지 65부와 학생 설문지 59부 등 12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

현재의 간호사 프리셉터쉽에 대한 만족도, 어려운 점 및 향후의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필요도, 원하는 보상, 어려운 점,

프리셉터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 임상수행능력 준비도

임상수행능력 준비도는 조순이(2004)가 개발하고 사용한 '프리셉터 교육 항목' 9개영역 40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임상수행에 대해 준비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 안 됨' 1점에서 '잘 준비됨' 3점으로 척도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설문 문항은 1) 간호업무파악 및 입원환자 관리, 2) 응급상황 대처 및 관리, 3) 감염관리, 4) 투약관리, 5) 수혈관리, 6) 전산입력관리, 7) 물품관리, 8) 특수검사 및 검사물 관리, 9) 퇴원환자 관리의 9가지 영역이며, 각 영역별로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 프리셉터는 간호학생의 준비도를, 간호학생은 본인의 준비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순이(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6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프리셉터와 간호학생 집단 간의 지각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프리셉터의 경우 평균연령은 29.9세이며 교육정도는 4년제 간호학과 졸업이 58.5%, 전문대학 졸업 26.6%, 대학원 이상 졸업이 13.8%였다. 근무부서는 외과계, 내과계가 각각 24.6%, 32.3%였으며 집중치료실과 응급실은 32.3%, 기타부서는 10.8%였다. 임상경력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5-7년인 경우가 30.8%, 10년 이상도 12.3%였고, 평균 95.73개월의 임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 경력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46.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33.8%로 뒤를 이었으며 평균 37.33개월의 프리셉터 경력이 있었다. 프리셉티의 수는 3명-5명이 44.6%로 가장 많았고 6명-8명이 30.8%, 3명 미만이 20.0%였다.

학생의 경우 평균연령은 22.14세였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고 답한 대상이 대부분이었다(72.9%). 학교성적은 대부분이 중간 정도로 지각하고 있으며(84.5%)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답한 대상이 55.9%로 과반수이상이었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응답 학생 중 79.7%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eceptors (N=65)

Variables	Category	n(%)	M±SD	Min/Max
Age(year)	<30	30(46.9)	29.85± 2.21	25/ 37
	≥30, <35	32(49.2)		
	≥35	2(3.0)		
Education level	3-year college	17(26.6)		
	Bachelor	38(58.5)		
	≥Master	9(13.8)		
Working area	Surgery	16(24.6)		
	Medical	21(32.3)		
	ICU, ER	21(32.3)		
	Others	7(10.8)		
Hospital experience (month)	<60	4(6.1)	95.73±26.71	43/168
	60-84	20(30.8)		
	85-119	33(50.8)		
	≥120	8(12.3)		
Preceptor experience (month)	<12	4(6.1)	37.33±18.62	6/ 96
	12-35	22(33.8)		
	36-59	30(46.2)		
	≥60	9(13.8)		
Number of preceptee	<3	13(20.0)	4.43± 2.32	1/ 11
	3-5	29(44.6)		
	6-8	20(30.8)		
	≥9	3(4.6)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59)

Variables	Category	n(%)	M±SD	Min/Max
Age(year)	<23	43(75.4)	22.14±1.77	20/31
	>=23, <25	12(21.0)		
	>=25	4(3.6)		
Health status	Good	43(72.9)		
	Medium	15(25.4)		
	Bad	1(1.7)		
Academic score	Good(over 4.0)	5(8.5)		
	Medium(3.0-4.0)	49(84.5)		
	Bad(below 2.9)	4(6.9)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3(55.9)		
	Moderate	26(44.1)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Highly satisfied	6(10.2)	2.11±0.589	1/4
	Satisfied	41(69.5)		
	Moderate	11(18.6)		
	Dissatisfied	1(1.7)		

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

현재 프리셉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49.2%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가 40.0%, '불만족 한다'가 10.8%였다. 또한 앞으로 프리셉터 역할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상자 중 50.8%가 '원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이므로 정해진 기간까지만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26.2%는

<Table 3> Preceptors' perception on nurse preceptorship (N=65)

Variables	Category	n(%)	M±SD
Degree of satisfaction	Satisfied	26(40.0)	2.70±0.65
	Moderate	32(49.2)	
	Dissatisfied	7(10.8)	
About future preceptor duty	I'll do this preceptor job even as a volunteer for my development.	17(26.2)	
	It is just a duty, so I'll do this job until given term.	33(50.8)	
	I don't want this job because of workload.	9(13.8)	
	I want to quit this job as soon as possible.	4(6.2)	
	I'll never do this job again.	2(3.1)	
Workload as a preceptor	Very much	15(24.2)	4.11±0.60
	Much	39(62.9)	
	Medium	8(12.3)	

<Table 4> Correlations and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nd workload as a preceptor

	Hospital experience	Preceptor experience r(p)	Number of preceptee	Education level (F/p)
Satisfaction	-.224(.073)	-.034(.788)	-.080(.525)	2.449(.095)
Workload	-.269(.034)	-.328(.009)	-.326(.010)	2.842(.066)

'자기발전을 위한 이득이 있으므로 강제적이지 않아도 자원하여 계속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다음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 와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답변도 각각 3.1%와 6.2%있었다. 프리셉터 역할시 주어지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87.1%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은 12.3%였다<Table 3>. 프리셉터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프리셉터 역할로 인한 업무량 부담은 현 부서 근무경력, 프리셉터 기간, 프리셉터 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부서와 프리셉터 경력이 많아도 프리셉터 역할로 인한 업무량 부담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Table 4>.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

학생프리셉터쉽 실시에 대한 생각은 과반수 이상의 프리셉터(70.3%)가 학생교육에 유용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대상은 9.4%에 불과하였다. 또한 학생프리셉터쉽을 실시할 경우 현재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업무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92.2%), 본인의 휴가를 이용하여 프리셉터쉽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한 대상은 1명(1.6%)이었다.

프리셉터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답한 대상이 34.6%로 가장 많았고 '지도력'이 18.9%, 다음 '교육계획 및 평가능력', '교육수행능력'의 순이었다. 또한 프리셉터쉽에 대한 역사, 의의, 역할, 업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이상(58.5%)이 보통정도 있다고 답하였으며 '조금 있는 편이다'가 30.8%였다.

학생프리셉터쉽 실시로 인한 장점은 '학생의 성장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가장 많은 37.5%였으며 '개인적 자기성장 자극'과 '지식획득 및 전문인으로서의 만족'을 선택한 대상이 각각 29.7%였다. 주위로부터의 인식이나 인정이 장점이라고 답한 대상은 3.1%에 불과하였다.

학생프리셉터쉽 실시 시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과다한 업무'가 67.2%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 증가'가 23.4%로 다음이었다. 이외에 '시간소비', '환자 접촉시간의 단축', '학교 및 학생과의 갈등'이 학생프리셉터쉽 실시로 인한 단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프리셉터는 학생프리셉터쉽 실시 시 '금전적 보상'을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44.4%), 승진점수에 가산점이나 직무평가(인사고과)에 가산점을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33.3%). 또한 실무교육, 계속교육, 워크샵 참여 기회를 원하는 경우가 9.5%였으며 공식적인 인정서나 프리셉터로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대상도 각각 7.9%와 4.8%였다<Table 5>.

프리셉터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지각 비교

프리셉터와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간호업무 파악 및 입원환자관리', '응급상황 대처/관리', '감염관리', '투약관리', '수혈관리', '전산입력 관리', '물품관리', '특수검사 및 검사물 관리', '퇴원환자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프리셉터 보다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준비도 점수가 높았고 '물품관리' 영역을 제외한 모든

<Table 5> Preceptors' perception on the student preceptorship (N=65)

Variables	Category	n(%)
Necessity of student preceptorship	Necessary	45(70.3)
	Unnecessary	6(9.4)
	Don't know	13(20.3)
Intention to be a student preceptor	Yes	9(14.1)
	No	37(57.8)
	Don't know	18(28.1)
Duty style during working as a student preceptor	Staff nurse duty	59(92.2)
	Charge nurse duty	4(6.3)
	Use Nurse's own off	1(1.6)
Most required abilities for preceptor (double response)	Leadership	24(18.9)
	Education skill	19(15.0)
	Education planning and evaluation	20(15.7)
	Communication skill	44(34.6)
	Professionalism	14(11.0)
	General nursing skill	6(4.7)
Knowledge about Preceptorship	Enough	3(4.6)
	Much have	20(30.8)
	Medium	38(58.5)
	Shortage	4(6.2)
Merits	Stimulation of individual development	19(29.7)
	Satisfaction as professionals and knowledge acquisition	19(29.7)
	Acknowledgment of other people	2(3.1)
	Satisfaction on the students' development	24(37.5)
Disadvantages	Time consuming	3(4.7)
	Over workload	43(67.2)
	Increased stress	15(23.4)
	Shortage of patient care time	1(1.6)
	Conflict with school and students	2(3.1)
Wish rewards	Monetary reward	28(44.4)
	Official recognition(certificate)	5(7.9)
	Advantage for promotion	21(33.3)
	Get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practice education or workshop	6(9.5)
	Become a guideliner as a preceptor	3(4.8)

<Table 6>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linical competence readiness between preceptors and nursing students

Categories	M±SD		t(p)
	Preceptor (n=65)	Student (n=59)	
Understanding of Nursing job/Admission	1.75±0.46	2.27±0.39	-6.729(<.001)
Emergent situation management	1.28±0.41	1.75±0.44	-6.053(<.001)
Infection management	1.49±0.53	2.28±0.48	-8.629(<.001)
Medication	1.75±0.76	2.12±0.39	-3.399(<.001)
Transfusion	1.40±0.51	1.95±0.46	-6.322(<.001)
EMR management	1.45±0.45	1.72±0.48	-3.196(.002)
Medical supplies management	1.44±0.43	1.54±0.50	-1.177(.241)
Specific examination and specimen management	1.52±0.46	1.99±0.69	-4.413(<.001)
Discharge management	1.54±0.53	2.29±0.53	-7.904(<.001)
Total	1.54±0.43	1.97±0.36	-6.129(<.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프리셉터는 '투약관리'와 '간호업무 파악 및 입원환자 관리'영역에서 간호학생들이 가장 잘 준비되어있다고 응답한 반면 간호학생 스스로는 '감염관리'와 '퇴원환자 관리'에서 준비가 잘되어있다고 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가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역은 프리셉터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 및 관리' 영역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간호학생은 '물품관리'라고 답하여 두 군 간에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나

타냈다<Table 6>.

논 의

본 연구는 학생프리셉터쉽에 대한 프리셉터의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간호학생과 프리셉터의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학생프리셉터쉽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과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Hickey(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임상교육 방법은 프리셉터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실습에 프리셉터쉽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 매우 드문 상황인데, 앞으로는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과 졸업 후의 빠른 현장 적응을 위해 학생 프리셉터쉽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프리셉터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평균 30세였으며 대부분의 프리셉터가 학사학위 소지자였고 임상경력은 평균 약 8년 이었는데 연령은 유럽의 프리셉터 연구에서 40-50대가 대부분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Heffernan et al., 2009). 그러나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대부분인 국내 선행연구와는 큰 차이가 없어(류은혜, 김명희, 강인순, 2004; 양남영, 한성숙, 유인자, 2005; 이점덕, 이정숙, 2006) 비교적 젊은 연령의 프리셉터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은 대부분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었지만 전문대 학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학사과정 중이거나 학사를 받은 신규간호사의 프리셉터로 전문대 학위를 소유한 간호사가 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프리셉터는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 소유를 권장한 연구결과(류은혜 등, 2004; Myrick & Barett, 1994)와 같이 학생프리셉터 대상 선정 시에도 학력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프리셉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은 보통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이 10.8%있었으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프리셉터 역할을 할 때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앞으로 프리셉터 역할을 할 의향에 대해 26.2%의 대상은 자기 발전을 위해 자원하여 계속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외의 대상은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프리셉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프리셉터쉽 정착을 위해서는 프리셉터에게 주어진 일상 간호업무에 추가로 프리셉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함께 간호단위에서 상황에 따른 업무량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생프리셉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리셉터가 학생교육에 유용할 것이라고 답하였지만 정작 일정한 보상을 전제한 학생프리셉터 역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14.1%의 대상만이 의지가 있다고 답해 이상과 현실과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 학생프리셉터쉽을 실시 할 경우 90.6%의 대상이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의 증가를 단점으로 들고 있는 것과 유관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 프리셉터 역할로 인한 업무부담은 임상경험과 프리셉터 경험이 많다고 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력자 프리셉터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업무부담과 책임감, 동료와의 불편함, 수간호사의 지원체계 부족 등을 프리셉터 역할수행의 어려움으로 보고한 허혜경 등(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간호조직차원에서의 지원 뿐 아니라 프리셉터의 역할인식 강화와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 및 지지적 환경조성이 함께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학생프리셉터가 될 경우 바라는 보상으로 무엇보다 금전적 보상과 승진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들고 있어 프로그램 계획 시 이러한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간호조직의 프리셉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인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요구도와 기대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의미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프리셉터도 주어진 업무환경의 부담감으로 좌절 혹은 소진되기보다는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개발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양남영 등, 2005).

또한 학생프리셉터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Heffernan 등(2009)의 연구에서 학생과 프리셉터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할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답한 결과와 일치하며, 김용순 등(2007)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대인관계 기술을 임상실습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든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리더쉽'과 '교육계획 및 평가능력', '교육수행 능력'을 프리셉터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들었다. 이는 프리셉터쉽이 프리셉티와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개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경험을 계획할 수 있으며 임상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세밀한 감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이점덕, 이정숙, 2006), 교육, 지도 능력과 리더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프리셉터쉽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프리셉터 역할을 맡을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리더쉽, 교육계획 및 수행, 평가 능력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간호사 프리셉터쉽의 역사, 의의, 역할, 업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지식은 보통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식부족을 호소하는 프리셉터도 6.2%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학생프리셉터 제도 실시 시 지식획득과 전문인으로서의 만족을 장점으로 언급한 프리셉터가 30%정도였으며, Zilenbo와 Monterosso

(2008)는 지식기반의 향상이 프리셉터의 가장 큰 내적 보상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희 등(1998)은 임상실습지도자의 최신 간호지식 부족을 간호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프리셉터 프로그램 기획 시 최신 간호지식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ogan(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프리셉터들은 자신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 원하며, 특히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은 학생프리셉터를 위해 비판적사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프리셉터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학교와 임상기관 공동으로 적절한 프리셉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학생이 지각한 본인의 임상수행능력은 조순이(2004)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인 프리셉티가 인식한 점수(평균 2.58점)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평균 2.21점)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직 프로그램화 된 학생 프리셉터쉽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학생이고 선행연구는 신규간호사라는 대상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프리셉터가 지각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준비도(평균 1.68점)는 조순이(2004)의 연구에서 프리셉터가 지각한 점수(평균 2.50점)와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낮다.

이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프리셉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데, 신규간호사의 실무 능력에 대한 수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인식을 비교한 대만의 Lee, Chen 및 Wang(2002)의 연구에서 수간호사들이 신규간호사가 자신의 실무 능력에 대해 평가한 것보다 잘 하리라고 기대하는 항목들이 더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Hallin과 Danielson(2010)이 스웨덴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임상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3-84%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반수 정도는 병동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임상실습교육에서 임상현장에 있는 실무교육자들과 좀 더 활발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프리셉터쉽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와 임상 간에 학생실습 프로그램 준비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호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임상수행능력 준비도는 매우 높았으나 이에 비해 프리셉터들은 상대적으로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 프리셉터쉽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셉터들이 간호학생에게 신규 간호사보다 낮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효율적 학생프리셉터쉽 개발을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이 본인의 부족한 임상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집단에서의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프리셉터가 학생들보다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준비도를 낮게 평가하는데 대한 심층적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프리셉터와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학생프리셉터쉽 도입 시 임상수행능력 준비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며, 보다 구체적인 임상수행능력 준비도 평가 도구를 활용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학생프리셉터쉽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상황에서 프리셉터가 매일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말보다 행동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프리셉터의 역할모델을 자신의 임상실습 속에서 자기 것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Myrick & Yonge, 2002). 또한 간호학생은 프리셉터쉽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습득한 이론을 단지 지식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임상에서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점덕, 이정숙, 2006). 그러나 학생프리셉터쉽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임상 간에 프리셉터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준비시키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주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임상교육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Nederveld, 1990).

본 연구는 임상교육에서의 학생프리셉터쉽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프리셉터의 학생 프리셉터쉽에 대한 인식과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지각을 파악해봄으로써 향후 새로운 임상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프리셉터쉽 도입과 시행에 앞서 이 제도에 대한 프리셉터의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간호학생과 프리셉터의 학생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학생프리셉터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지식과 만족도는 중간정도였으며 업무의 과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프리셉터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하였으며 학생프리셉터쉽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본인의 참여의사는 낮은 편이었다. 학생프리셉터쉽의 장점으로는 자기성장 및 자극, 지식획득과 전문인으로서의 만족이었고, 단점으로는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의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승진 및 인사고과 반영을 원하고 있었다. 임상수행능력 준비도는 모든 영역에서 프리셉터의 간호학생에 대한 평가보다

간호학생 자신의 평가가 높아 간호학생들의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 프리셉터와 간호학생간의 지각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연구의 제한점은 일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프리셉터와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프리셉터의 인식을 반영한 학생 프리셉터쉽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생프리셉터쉽 개발과 프리셉터쉽 활용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후 평가연구 및 재정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순, 박지원, 김효심, 유문숙, 방경숙, 박진희 (2007). 임상간호실습교육과 학교-임상 연계조직에 대한 교수와 실습지도 간호사의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292-300.

류은혜, 김명희, 강인순 (2004). 프리셉터의 업무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1), 44-53.

양남영 (2003). *프리셉터 교육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양남영, 한성숙, 유인자 (2005).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 *한국 간호교육학회지, 11*(2), 135-141.

유재희, 조현숙, 이상하 (2002). 기본간호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8*(1), 45-53.

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 (1995). 임상실습 교육개선을 위한 일 실습지도자 활용모델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5*(3), 581-596.

이원희, 김조자, 유혜라, 김기연, 권보은, 김상희 (1998). 임상교육의 임상지도자 활용모델 적용효과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0*(2), 281-288.

이점덕, 이정숙 (2006). 프리셉터쉽 적용이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2(3), 434-443.

조순이 (2004). *신규간호사의 프리셉터쉽 교육프로그램 평가.*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주.

최미숙 (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허혜경, 최상순, 안양희, 임영미, 신윤희, 박소미, 김기연, 송희영, 김기경 (2004). 학생 임상실습 지도자의 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4*(5), 859-868.

Beeman, R. Y. (2001). New partnerships between education and practice: precepting junior nursing students in the acute care setting. *J Nurs Educ, 40*(3), 132-134.

Blum, C. A. (2009). Development of a clinical preceptor model. *Nurs Educ, 34*(1), 29-33.

Hallin, K., & Danielson, E. (2010). Preceptoring nursing students: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preparation and study approaches in clinical education. *Nurse Educ Today, 30*(4), 296-302.

Heffernan, C. Heffernan, E., Brosnan, M., & Brown, G. (2009). Evaluating a preceptorship programme in South West Ireland: perceptions of preceptors and undergraduate students. *J Nurs Manage, 17*, 539-549.

Hickey, M. T. (2010). Baccalaureate nursing graduates' perceptions of their clinical instructional experiences and preparation for practice. *J Prof Nurs, 26*(1), 35-41.

Lee, Y. Y., Chen, C. H., & Wang, C. J. (2002). Entry-level skill competency: A comparison of head nurses expectations and new graduates perceptions. *J Nurs Res, 10*(3), 217-226.

Mallette, S., Loury, S., Engelke, M. K., & Andrews, A. (2005). The integrative clinical preceptor model: A new method for teaching undergraduate community health nursing. *Nurs Educ, 30*(1), 21-26.

Myrick, F., & Barett, C. (1994). Selecting clinical preceptors for basic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critical issue in clinical teaching, *J Adv Nurs, 19*(1), 194-198.

Myrick, F., & Yonge, O. (2002). Preceptor behaviors integral to the promotion of student critical thinking. *J Nurs Staff Dev, 18*(3), 127-133.

Nederveld, M. E. (1990). Preceptorship: One step beyond. *J Nurs Staff Dev, 6*(4), 186-194.

Rogan, E. (2009). Preparation of nurses who precept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descriptive study. *J Contin Educ Nurs, 40*(12), 565-570.

Scheetz. L. J. (1989).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 preceptorship programs and the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J Nurs Educ, 28*(1), 29-35.

Zerbe, M. B., & Lachat, M. F. (1991). A three-tiered team model for undergraduate preceptor program. *Nurs Educ, 16*(2), 18-21.

Zilenbo, M., & Monterosso, L. (2008).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preceptorship in the clinical educa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ontemp Nurs, 30*, 89-94.

Preceptor's Perception of Student Preceptorship and Comparison of Perception of the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Readiness between Nurses and Students

Park, Jee Won[1] · Kim, Ki Sook[2] · Bang, Kyung Sook[3]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2)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preceptorship and to compare the perception on the readiness of clinical competence between nurse preceptors and senior-level nursing students. **Method:** Data was colle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Study participants were 65 preceptors in one university hospital and 59 nursing students in the same university. **Result:** The knowledge and satisfaction about preceptorship in the nurse preceptor was 2.66 and 2.70 out of 5. Most of the preceptors (70%) agreed to the students preceptorship program even though the intention to be a preceptor was very low (14.1%). They responded that the merits of student preceptorship were self-development (29.7%) and knowledge acquisition (29.7%), whereas the disadvantages were increased workload (67.2%) and increased stress (23.4%). Requested rewards were monetary reward (44.4%) and promotion (33.3%). In all areas of clinical competence readiness, students' perception score was higher than preceptors'. **Conclusion:** Nursing education must reexamine current approaches to clinical teaching and seek methods to better prepare future nurses. These findings may serve as a guide to create an ideal students preceptorship program to place a greater emphasis on the competencies desired for providing high quality nursing services.

Key words : Preceptorship, Nursing Student,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i Sook*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 Seok-Dong, Dong Jak Gu, Seoul, Korea
Tel: 82-2-820-5672 Fax: 82-2-820-7962 E-mail: 99sophi@hanmail.net